# Meritz Financial Daily

| 2025. 11. 24 (Mon)

meritz 메리츠증권

금융 Analyst 조아해
02. 6454-4870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02. 6454-4905
kunhee.kong@meritz.co.kr

## News

### 4대 은행 가계대출 셧다운 임박… 올해 계획보다 33% 늘어
국민일보 https://zrr.kr/BRgPpd

4대 은행의 이달 20일까지 가계대출 증가분은 8.0조원으로 올해 목표 증가액 대비 33% 많아

6 · 27 부동산 대책 당시 하반기 목표치를 올해 초 설정대비 절반 축소… 발등에 불이 떨어진 4대 은행은 올해 말까지 한 달여가 남았지만 가계대출 창구가 조만간 닫힐 전망

### 배드뱅크, 5대銀 분담률 66%…대부업체는 버티기
동아일보 https://zrr.kr/Cfilvu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해 마련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에서 전체 출연금 3,600억원 중 5대 시중은행의 부담 비율이 7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

새도약기금이 사들일 채권을 절반 이상 보유한 대부업체들은 오히려 미온적인 분위기

### "10억 준대도 망설여?"…올해는 유독 '주춤'한 희망퇴직, 왜
아시아경제 https://zrr.kr/GPNxlx

은행권의 희망퇴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노사 협의에 따라 내달이나 내년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전망

다만 올해는 정년 연장 논의가 부각되면서 예년보다 신청 인원이 줄어든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어

### "고객 이탈 막아라"…은행권 연말 예금금리 높인 '락인' 특명
블로터 https://zrr.kr/hgj2e5

연말 기준금리 인하의 기대가 무너지면서 은행권의 예금금리 경쟁 심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가릴 것 없이 고객 이탈을 막고 묶어 두는 이른바 '락인(Lock-in)' 특명이 내려지며 비상이 걸려

### 민주당 '자사주 보유·처분 결정권' 이사회서 주총으로 전환 추진
매일경제 https://zrr.kr/AVAHxC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하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져

재계는 이 같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 적대적 인수 · 합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

### 한국투자증권, 벨기에펀드 불완전판매 458건 자율배상 결정
연합뉴스 https://zrr.kr/mTuKlm

한국투자증권이 벨기에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450여건 자율배상을 결정

금액 기준으로는 총설정 원본 583억원 중 339억원에 민원이 제기됐고, 총 60억7천만원이 자율배상 금액으로 결정

### 신규담보 손해율 '가이드라인' 내년 연기
머니투데이 https://zrr.kr/3jptka

'고무줄 보험회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신규담보 손해율 가이드라인이 내년으로 연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최근 5년 안에 출시한 신규담보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손해율을 쓰고 있다며 새 기준을 제시했으나 보험학계에서조차 "예외적용이 많다"며 반론을 제시

### '고속 성장한 한금서' 한화생명, 다시 100% 자회사로 품는다
연합인포맥스 https://zrr.kr/WvPVdC

한화생명은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7.67%를, 한국투자밸류운용으로부터 3.44%의 전환우선주 지분을 전량 취득

향후 발생할 배당을 고려하면 현시점이 지분 매입의 적기였고,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이번 지분 매입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 가능

### 스테이블코인 연내 법제화 물 건너가나…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도 난항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w3umob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핵심 쟁점을 두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지만 정부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법안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

2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제1소위원회 안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빠져

### 최대 위기 몰린 '비트코인 황제'… 스트레티지 MSCI 퇴출 경고등
매일경제 https://zrr.kr/0EYJEJ

시장에서는 MSCI가 스트레티지의 퇴출을 결정할 경우 당장 약 28억달러(약 3조9000억원)의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

MSCI는 지난달 "디지털 자산 보유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기업은 '투자 펀드'와 유사해 지수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